광주 지산초 북분교 5년만에 다시 본교된다

생태 숲길·황토방 매년 학생수 늘어

본교(本校)보다 학생수가 더 많은 분교(分校)로 화제가 됐던 광주 지산초 북분교가 5년여만에 다시 본교로 격상된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 분교로 격하됐던 북분교의 현재 학생수는 78명으로 농산어촌지역의 본교 기준인 60명을 넘어섰다.

분교 당시 28명에 그쳤던 학생수는 매년 10명 이상씩 늘면서 지난해 60명을 돌파해 본교를 앞질렀다.

특히 현재 2명에 불과한 6학년이 졸업하고, 2010학년도에 10명 이상의 신입생만 입학하면 전교생의 숫자는 80명을 넘게된다.

광주에서 폐교 직전까지 몰렸던 학교가 다시 본교로 격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유례없는 변화는 이 학교만이 가진 자연 친화적인 시설이 큰 역할을 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문을 연 이 학교는 오랜 역사가 말해주듯 아름드리 소나무 숲과 아담한 교정 등 2만여㎡의 친환경적인 공간을 가진 전원 속 학교다. 시멘트 바닥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가로수 길, 들꽃 뜨락 정자, 텃밭으로 꾸며져 있다.

4천여㎡의 텃밭을 조성해 학생이 직접 가꾸고 생태 숲길 걷기, 야생화 관찰, 천연염색 등 생태체험, 아토피 치료에 도움을 주는 황토방(11㎡) 시설 등 전원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렸다. 광주 도심에서 이사를 온 학부모들이 방과후 수업에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등 학부모가 학교 활동에 앞다퉈 참여하고 있다.

시 교육청도 도시 근교 농촌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나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교과부가 학생수 200명을 밑도는 도시지역 학교를 통폐합 기준으로 정해 놓은 상황이어서 시 교육청이 농촌지역인 북분교에 어떤 잣대를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이와관련, 안순일 시 교육감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농촌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결실을 본 첫 사례"라면서 "60명 이상의 학생을 계속 유지하면 본교로 다시 승격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과기원 수시경쟁률 6.5대1

첫 학사과정 80명 입학사정관제로 조선대 3.8대1·서울대 6.59대1

내년에 첫 학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하는 광주과학기술원 수시모집 경쟁률이 6대1을 넘어섰다.

또 조선대는 수시 1차 모집 결과 지난 해 보다 약간 높은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15일 최근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80명 정원에 521명이 신청, 6.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2월초 정시모집(20명)을 포함해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경시대회 실적, 구술시험 등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한다. 수시모집 최종 합격자는 11월3일 발표한다.

조선대는 지난 14일 2010학년도 수시 1차 모집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천156명 모집에 4천362명이 지원해 지난 해 3.6대 1 보다 높은 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수도권 주요 대학 중 한양대의 평균 경쟁률은 37.54대 1로 지난 해의 30.37대 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고려대 29.16대 1(지난해 25.44대 1), 중앙대 34.38대 1(〃 25.58대 1), 성균관대 30.05대 1(〃 26.59대 1) 등의 경쟁률도 작년보다 높아졌다.

또 연세대(20.58대 1), 경희대(19.25대 1), 국민대(11.8대 1), 동국대(19.56대1), 이화여대(12.58대1), 한국외대(19.76대 1) 등도 경쟁률이 소폭 올랐다.

반면 서울대의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6.94대 1에서 올해 6.59대 1로 약간 낮아졌고 서강대(22.51대 1), 건국대(16.47대 1) 등도 경쟁률이 다소 떨어졌다.

이와 함께 중앙대 논술우수자전형 중 의학부가 13명 모집에 2천714명이 몰려 208.77대 1로 이날까지 마감한 주요 대학 중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한양대 의예과와 고려대 의과대 역시 149대 1, 120.53대 1을 기록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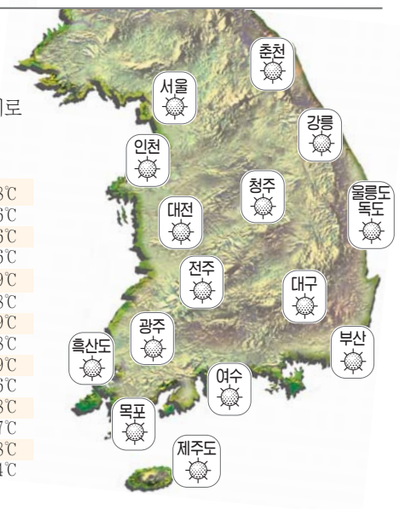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6분 해짐 18시 38분 / 달뜸 03시 02분 달짐 16시 55분

가을 옷 입은 하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 음	16/28℃
목 포	맑 음	19/26℃
여 수	맑 음	19/26℃
완 도	맑 음	19/26℃
구 례	맑 음	15/29℃
해 남	맑 음	15/28℃
장 흥	맑 음	15/29℃
고 흥	맑 음	15/28℃
순 천	맑 음	16/29℃
영 광	맑 음	14/26℃
진 도	맑 음	16/28℃
전 주	맑 음	14/27℃
남 원	맑 음	12/28℃
흑산도	맑 음	19/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0.5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보통

	밀물	썰물
목포	12:04	05:30
	--:--	17:28
여수	07:09	01:09
	19:38	13:0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날 씨						
최저/최고	17/28	17/29	17/29	17/28	18/25	16/25

"골든벨을 울려라" 15일 오후 광주 경양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운암3동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열린 '도전! 독서 골든벨 축제'에 참가한 200여명의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퀴즈풀이에 흠뻑 빠져 있다.

광주·전남 외국인 범죄 급증

작년 81% 늘어 567건… 경찰인력은 제자리

광주·전남의 외국인 범죄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찰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999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외국인 범죄는 567건에 달했다.

이는 2007년(312건)에 비해 81.7%(255)나 늘어난 것으로, 올 들어선 8월 현재까지 외국인 범죄가 429건 발생했다.

특히 전남은 올해 외국인 범죄가 298건에 달하면서 이미 지난해(309건) 수준에 근접했다.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동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지난 2001년 4천328건에 불과했던 국내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2만624건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또 8월 현재까지 국내 외국인 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 68명 ▲강도 187명 ▲강간 83명 ▲절도 1천361명 ▲폭력 3천477명 등으로 외국인들의 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하는 경찰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광주·전남의 26개 경찰서에 외사계가 설치된 곳은 4곳(15.4%)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의 외사계 설치율(43.4%)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외국인 전담 인력 보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서 노인 수십명 건강용품 사기 피해

광주지역 노인 수십명이 건강보조용품 판매를 미끼로 한 남녀 혼성 4인조 사기단에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모(여·71)씨 등 노인 40명은 이달 초 30~40대 남녀 4명이 건강보조기와 건강식품 등을 팔겠다고 광고한 뒤 돈을 가로채 달아났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환불을 조건으로 제품당 30여만원에 달하는 찜질기와 건강식품을 노인들에게 넘긴 뒤 물품대금 1천200여만원을 받아 최근 잠적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기극을 벌인 건물을 임대하고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송금한 김모(31)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압축해 뒤쫓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농협 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잇단 고발

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 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15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무안 운남농협과 나주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와 조합원이 해당 시·군 선관위에 잇따라 적발,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운남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축의금 등 명목으로 조합원 6명에게 총 7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나주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B씨는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며 조합원 C씨에게 3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철거 반발 증심사 인근 주민 내달 9일까지 자진 이주키로

박주선의원 주민 설득

광주시의 강제철거 방침에 반발해 이주를 거부해왔던 무등산 증심사 인근 일부 주민과 상인들이 다음달 초까지 자진 이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됐던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15일 광주시도시공사에 따르면 현재 무등산 증심사 부근에 거주하는 신모씨 등 17명이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다음달 9일까지 이주를 약속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보내와 철거작업을 멈추고 추석 이후로 공사일정을 미뤘다.

신씨 등은 최근 광주시가 자신들의 거주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하려는데 반발해 광주지방법원에 계고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한편,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지난 14일 이주를 거부하는 증심사 원주민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광주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